

IV
DIABLO
LORD OF HATRED

악몽의 날개
위에서

아드리오나



JONATHAN MABERRY

스토리

JONATHAN MABERRY

일러스트

KIRSEEL

편집

MEGAN WALKER

디자인

SOPHIE ERB

아트 디렉션

ALEX CRESWICK

세계관 자문

IAN LANDA-BEAVERS

창작 자문

MATT BURNS, CASSIEL CHADWICK,
CHLOE FRABONI, ZAVEN HAROUTUNIAN,
DAVID LOMELI

프로덕션

HANNAH MATTISON, BRIANNE MESSINA,
TAKAYUKI SHIMBO, JT TORREA, TRACY WANG

번역

BLIZZARD LOCALIZATION



Blizzard.com

© 2026 Blizzard Entertainment, Inc. Blizzard, Blizzard Entertainment 로고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Blizzard Entertainment, Inc.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출간: Blizzard Entertainment.

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이름, 인물, 장소, 사건은 작가 또는 아티스트의 상상의 산물이거나 허구적으로 지어낸 것이며, 생사를 불문한 실존 인물, 사업체, 사건 또는 지역과의 유사성은 순전한 우연입니다.

Blizzard Entertainment는 작가 또는 타사 웹사이트 또는 콘텐츠를 관리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나, 신탁 여왕의 말을 들어라. 현재와 과거, 미래를 아는 것이 내 몫이니.
꿈은 창문을 닫고 통로를 잠가도 진실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어둠의
세계, 잠든 정신으로 통하는 문이다.
꿈에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희망을 품고, 계략을 꾸미고, 믿음을 얻으며...
모든 난국을 해결하고 자신에 대한 비밀을 발견했다고 생각하며 잠에서
깨어난다.
오, 우주가 이런 신념에 얼마나 기뻐했던가. 희망의 꿈을 꾸는 자의 선율이
현실에 그 의지를 강요할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하나 진실은 꿈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거미줄 가득한 악몽의 통로
속에서 진실은 찾아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거기에는 대가가 따른다.
그래, 참으로 엄청난 대가가...





아드리오나

아드리오나는 평생을 창 의 폭풍 속에서 싸우며 마음을 달랬다. 이제 전사이자 여왕으로서, 그녀는 마침내 강철과 피로 얻어낸 것을 소유하게 되었다.

평화.

그녀는 얼굴을 스치는 바닷바람을 느끼며 수도를 거닐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걸음을 멈췄고, 그냥 인사만 하지 않고 그녀가 해준 모든 일에 감사를 표했다.

그들은 여왕을 사랑했고, 그녀는 백성을 사랑했다. 선술집에서 백성들은 여왕의 용맹과 용기를 노래했다. 도시를 걸으며 그녀는 창 의 묵직한 무게를 느꼈고,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를 새삼 실감했다. 시간이 스멀스멀 그녀를 덮쳤다. 시간은 그녀의 체격을 줄이고, 한때 그녀의 손에서 달빛의 마법봉 같았던 그 무기의 무게는 키웠다.

시장 가판대에서 작은 소녀가 달려 나왔다. 소녀는 작은 두 손에 잘 익어 통통하고 과즙 가득한 빨간색 사과를 담아 아드리오나에게 건넸다.

“사랑하는 여왕 폐하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그녀는 사랑스럽게 말을 더듬으며 말했다.

아드리오나는 허리를 숙여 사과를 받으며 아이를 축복했고, 여왕이 사과를 깨물어 먹는 모습에 자부심과 기쁨을 동시에 느끼는 아이를 기분 좋게 바라봤다.

하지만 궁정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 그녀의 가슴을 가볍게 했던 감정은 조금씩 사라져 갔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무언가 다른 것이 아파지고, 지금껏 왕국을 위해 치러야 했던 수많은 대가가 떠올랐다. 그녀를 앞서 갔던 여왕들도 모두 이런 무게를 느꼈던 걸까?

그녀는 조금 일찍 물러나 수면 물약을 마시고, 긴 잠을 청하려 자리에서 누웠다. 잠을 자면 끈질긴 의혹이 마음 구석으로 물러나 줄 거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잠은 그저 문에 불과했기에, 그걸 통과한 그녀는 더 어두운 곳으로 들어섰다.

멀리서 방패여군주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경험 많은 장교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그래서 여왕도 잔뜩 경계하며 돌아서야만 했다.

“무슨 일이냐?”

“여왕 폐하,” 방패여군주가 방 밖의 발코니를 가리키며 외쳤다. “밤의 어둠을 틈타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

아드리오나는 발코니 난간에 기대어 서서 경악한 눈빛으로 만을 가득 채운 것들을 보았다. 돛수십 개. 아니, 수없이 많은 돛이었다. 커다랗고 검은 삼각돛에는 불타오르는 두개골 문장이 그려져 있었다.

“해적입니다, 여왕 폐하.” 방패여군주가 한숨처럼 말했다.

“아니야,” 아드리오나가 말했다. “그게 아니야...”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저들은 죽음의 깃발을 달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저들을 상대하러 가야 합니까? 아니면... 저들도 그저 폭풍을 피하려는 겁니까? 그냥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우리 항구에서 기다리기만 하려는 겁니까?”

아드리오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망설임이 그녀의 혀를 붙잡았다.

돛에 대한 그녀의 생각이 옳다면, 외교적인 수단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름을 불러라.* 그녀는 생각했다. 언제나 그녀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진실이었다. 현실을 왜곡하지도, 사탕발림을 하지도 않았다. 그 돛은 그의 것이었다.

죽음이 그녀의 만으로 들어섰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는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다.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돌아서서 대장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도시를 봉쇄하고 경보를 울려라. 하지만 조용히 해야 한다. 드러내지 말고, 모두의 손에 창을 쥐여 줘라. 서둘러!”

방패여군주는 놀라서 잠시 입을 벌리고 여왕을 바라봤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돌아서 달리며 장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보좌관들이 아드리오나의 방어를 들고 나타났고, 그녀는 팔을 벌리고 서서 굳고 암울한 표정으로 방어구 하나하나가 몸에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경갑, 팔목 장갑, 흉갑, 투구. 그리고 그녀의 창.

여왕에서 여왕으로 전해 내려온 강대한 스코보스의 가시. 그 창자루를 따라 수도 없이 피가 흘렀고, 아드리오나도 직접 그 무기를 사용하여 인간과 괴물, 병사와 악마를 학살했다.

방어구가 모두 갖춰지자 그녀는 방을 나서 빙빙 도는 계단을 따라

공포의 무게에 짓눌려 시간은
흔들리고 무너져 내렸다.
부서진 순간의 한쪽에서
그녀는 전당 안에 있었고,
그다음에는 치열한 전투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내려갔다. 은빛 약속으로 반짝이는 창을 든 병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드리오나는 그들을 향해 고개를 고덕었다.

“우리는 포위당했다.” 그녀는 말했다. “이번 적은 절대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정복하러 온 것이 아니라 말살하러 왔다.”

그녀는 이 땅의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향해 손짓했다.

“죽음이 우리를 찾아왔다, 자매들이여.” 그녀는 엄숙하게 말했다. “아마존의 피 한 방울에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똑똑히 보여줘라.”

먼 과거의 전투에서 외쳤던 오래된 표현이었지만, 그 말을 들은 어린 참여전사들의 등이 곳곳이 펴지고, 두 눈에 불길이 이글거리는 것이 똑똑히 보였다.

하지만 창을 들어올리던 아드리오나는 선임 대장들의 얼굴에 희미한 의혹이 스치는 것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여왕이 무기를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지, 방어구로 인해 움직임이 얼마나 지체되는지 보고 있었다. 비록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들은 애써 정신을 집중했다.

함께, 그들은 적을 마주하러 달려갔다.

공포의 무게에 짓눌려 시간은 흔들리고 무너져 내렸다. 부서진 순간의 한쪽에서 그녀는 전당 안에 있었고, 그다음에는 치열한 전투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전투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지만, 아드리오나는 팔다리에서 몇 시간 동안 전투를 계속했을 때 느껴지는 익숙한 아픔을 느꼈다.

몇 시간의 전투.

팔이 너무나도 무겁고, 손잡이까지 시뻘겋게 물든 창은 너무 느리고 굵었다. 너무 길었다. 너무 무거웠다. 손에 쥘 손잡이도 어딘가 이상했다.

사방에서 강철과 불의 전투가 끓어올랐다.

그리고 사체가 쌓였다.

그녀 주위로 사체가 산더미처럼 쌓였지만, 온전한 모습은 하나도 없이 모두 잘리고 베인 붉은 악몽 같았다. 그녀는 검은 옷을 입고 방어구에 불타는 두개골이 찍힌 선원들을 찾았고, 그런 사체도 여럿 있었다. 하지만 망자들 중에는 적보다 아마존이 더 많았다.

훨씬 더 많았다. 그녀의 전사들은 싸우기 위해 태어났고, 모두가 피의 호수를 건넜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패배할 수 있던 말인가? 뭔가 잘못됐다. 미친 짓이었다. 그때 아드리오나는 주위 세계가 갈라지는 것을 느꼈다.

전투의 소음에 귀가 반쯤 멀어 버린 것만 같았다. 어쩌면... 그녀의 감각이 무뎠던 것일 수도 있었다. 판단력도 흔들렸다.



경험 많은 전사인 대장 하나가 배에 난 끔찍한 상처를 짓누르며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묘하게 당황한 표정으로 여왕을 올려다봤다.

“어째서입니까, 여왕 폐하?” 그녀는 애원하듯 물었다. “왜 공격한 겁니까?”

“뭐...?” 아드리오나가 물었다.

“저들은 그냥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대장은 그 질문도 끝내지 못한 채 죽었다.

아드리오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고, 인간이 아닌 심홍색 덩어리처럼 조각조각 잘린 아마존의 사체들을 둘러봤다.

그때 아드리오나 위로 그림자가 드리웠고, 여왕은 고개를 돌려 검은 옷의 남자를 보았다. 그의 가슴에는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보니, 그의 가슴에 새겨진 것은 날개를 활짝 펼치고 아침의 태양 앞을 날아가는 펠리컨이었다. 증오를 섬기는 살인자가 아니라, 상인이었다.

그는 피가 똑똑 떨어지는 시미터를 손에 들고, 얼굴 가득 분노와 상처, 혼란이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드리오나 여왕,” 그는 물었다. “왜 이런 거지? 우리 평화롭게 거래를 하려고 왔을 뿐인데, 너희는 우리를 기습 공격했다. 이성을 모두 잃기라도 한 건가? 넌 한때 위대한 여왕이었다. 강인하지만 공정했지.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나이가 들어 이성까지 잃고 말았나?”

그녀는 손에 쥔 창을 내려다보며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창자루는 부러지고, 창날도 여기저기 깨지고 이가 빠져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한 건, 그 창을 잡은 손이 잔뜩 말라 비틀어진 노파의 것이라는 점이었다. 전사의 손이 아니라, 풍파에 말라비틀어진 손.

“우리는 평화를 원했다.” 선원은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하지만 너희는 전쟁을 택했지. 그렇다면 전쟁을 해보자. 여기에 평화는 없고,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전쟁뿐이라면, 우리는 필요한 걸 모두 ~~빼앗~~고 그걸 정의라 부르겠다. 처음 피는 너희가 흐르게 했지만, 마지막은 우리가 흐르게 할 것이다.”

“아니야... 난...”

“더 말할 필요 없다.” 그는 거칠게 내뱉으며 무기를 들었다. “넌 이 전쟁을 강요하며 백성들을 배신했다. 그들이 흘린 피는 모두 네 책임이다. 우리는 스코보스가 배신으로 오염된 땅임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이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 것이다. 폭풍처럼 너희들의 섬 전체를 휩쓸고, 이 악을 근원부터 박멸해 버리겠다. 너는 실패한 여왕이요, 악한 배신자다. 우리는 널 역사의 책장에서 지워 버리겠다.”

아드리오나는 비틀거리며 물러나 부러진 창을 들어올리려 했다. 사방에서 아마존들이 쓰러지고 있었다. 그들은 쓰러지면서 희망을 모두 잃고 비난하는 눈빛으로 여왕을 바라봤다. 그들의 입은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거기엔 집결의 함성도, 사랑도 없었다. 이제 그녀의 이름엔 저주가 가득했다. 그녀가 백성들을 사지로 내몰았고, 그래서 그들은 모두 그녀를 저주하며 죽을 것이다.

창이 너무 무거웠다. 게다가 아무리 높이 들어올리더라도, 공격을 쳐낼 힘이 없었다. 시미터가 그녀를 때렸고,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침대에서 떨어질 뻔한 아드리오나는 심장이 방망이질하는 것을 느끼며, 목을 붙잡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몸을 비틀어 창밖을 바라봤다. 나부끼는 커튼 사이로 햇살이 흘러들었다. 여왕은 귀를 기울였다.

비명은 없었다. 검이 방패를 때리는 소리도 없었다. 단말마의 외침도 없었다.

“꿈이었나...” 그녀는 헐떡이며 고개를 돌렸다. “그뿐인가?”

하지만 갑자기 들려온 소리에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창턱에 까마귀 한 마리가 깃털을 펼치며 서 있었다. 털이 조금씩 빠져가는 늙은 까마귀의 눈이 그녀를 꿰뚫어 보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 눈 안에는 모든 공포와 모든 비밀, 악몽의 예언이 남긴 모든 조각이 담겨 있는 것만 같았다.

“안 돼...” 그녀는 숨을 내쉬었다.

까마귀는 그저 끝없이 깊고 검은 눈으로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그래, 이제 보았느냐.

그 어떤 학자도, 여왕도, 전사도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소유하고 있지 않다. 지식의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자는 없다. 우리는 누구나 스스로 행한 일들에 쫓긴다. 모든 선택이 우리를 각자의 길로 내몰았다. 아무리 정의로움을 확신하더라도 모든 선택은 마치 칼처럼 자신을 벤다. 그런 상처를 통해 우리의 희망과 순수함은 빠져나간다. 상처가 날 때마다 우리는 육신과 피에 타락을 불러들인다.

하지만...

어떤 정신은 잘 타락하지 않는다.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누가 판단할 수 있을까?

나는 나 자신의 꿈으로부터... 나의 악몽으로부터 깨어난다. 공포를 외면하려 눈을 돌리더라도, 나는 여전히 볼 수 있다. 여전히 알 수 있다. 내 입에서 나도 모를 말이 흐른다.

“무언가 오고 있다.” 나는 말한다. 그리고 바깥의 숲에서 일천 마리 밤의 새가 공포로 울부짖는다. “무언가 끔찍한 것이... 오고 있다...”

저자 약력

JONATHAN MABERRY는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브램 스토커 상 5회, 스크라이브 상 4회, 잉크팟 상 1회 수상자로, 50편이 넘는 장편 소설을 쓰고 30편이 넘는 작품집을 편집한 바 있다. 그는 또한 코믹북 작가, 시인, 최고 프로듀서, 글쓰기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의 *V-Wars*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제작되었고, *Rot & Ruin*은 알콘 엔터테인먼트에서 영화로 제작 중이며, *Joe Ledger* 스릴러는 *John Wick* 영화의 감독인 Chad Stahelski가 TV 시리즈로 제작 중이다. 그는 공포, SF, 판타지, 모험, 스릴러 등 다양한 작품을 저술하며, 국제 미디어 타이 인 작가 협회의 회장이자, 워워드 테일스 잡지의 편집자이기도 하다. Jonathanmaberry.com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